유럽

업무분야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유럽 시장에 진출하거나 투자하는 한국 기업을 위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국의 법률 체계와 규제 환경은 물론, 산업별 비즈니스 관행까지 고려하여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시장 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합니다.

바른의 유럽팀은 현지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은 한국 변호사들과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 유럽 언어에 능통한 외국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M&A, 합작투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거래, 기술 이전 및 국제계약 등 다양한 거래 분야에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며, EU 경쟁법, 개인정보보호, 환경 규제 등 복잡한 규제 이슈에도 실무 중심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또한 유럽 각국의 로펌, 회계법인, 컨설팅 기업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고객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유럽 시장은 친환경·에너지 전환, ESG 경영, 공급망 규제 등 새로운 패러다임이 기업 활동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규제를 준수하는 차원을 넘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워지고 기업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바른은 기업전략연구소와의 긴밀한 협업 체계를 통해 법률 자문을 넘어 전략적 해법을 제시합니다. 기업전략연구소는 ESG와 컴플라이언스, 국제통상, 거버넌스 투명성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다수의 프로젝트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회계·정책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원팀(One Team) 협업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바른은 이러한 통합 자문 역량을 기반으로 기업이 유럽의 엄격한 규제를 리스크가 아닌 새로운 성장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단기적 대응을 넘어 중장기 전략까지 설계하는 든든한 파트너로서, 고객이 복잡한 유럽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주요구성원

김재협

한명관

노석준

송태섭

강보람

김유

최동두

주요업무분야

- 유럽 현지법인 설립, 합작투자 및 전략적 제휴 자문
- M&A 및 지분 인수 자문, 국경 간 인수·합병 거래 지원
-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대규모 투자 구조 관련 자문
- 부동산 개발, 실물자산 취득 및 대체투자 관련 자문
- 기술 이전, 수출입 계약 등 다양한 국제계약 자문
- 한국·유럽 기업 간 거래 및 분쟁 해결 지원
- EU 경쟁법, 개인정보보호, 환경·지속가능성 규제 대응 자문

- 유럽 내 지적재산권 출원, 등록 및 침해·무효심판 관련 자문
- ESG·컴플라이언스 통합 자문(공급망 규제, 탄소중립, 기업 지배구조 등)

최근업무사례

[자문] 독일계 컨테이너 운송회사인 하파그로이드와 아랍계 컨테이너 운송회사인 UASC의 한국 자회사간 합병 자문